

- ◆ [Focus] IRA의 역설,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된 친환경 투자
- ◆ [What's News]
 - (GDP) 2022년 4분기 GDP 상승세 발표와 현지 반응
 - (태양광) 미 하원, 태양광 우회덤핑 관세 유예 취소를 위한 결의안 제출
 - (반도체) 美·日·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합의
 - (WTO) 미 무역대표부, '국가안보는 WTO 판결에 우선'
 - (러우분쟁)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차원의 美·우크라이나 MOU 체결
-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IRA) IRA의 역설,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된 친환경 투자

- IRA 제정 이후 친환경·청정에너지 투자 활발
 - 미국청정전력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는 IRA 입법 효과로 총 20여 개 제조시설 증축 등 미국 내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견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
 - 지난 12월 협회가 발표한 미국 청정에너지투자(Clean Energy Investing in America) 자료에 따르면 IRA 법안 통과(22년 8월) 이후 3개월간 총 20여 개의 신규 청정에너지 제조시설 건설 또는 확장 계획이 보도
 - 여기에는 12개의 새로운 태양광 제조시설, 6개의 신규 그리드 배터리 저장 시설, 1개 풍력 발전 제조시설 등이 포함되며 7,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IRA 제정 이후 발표된 친환경 제조시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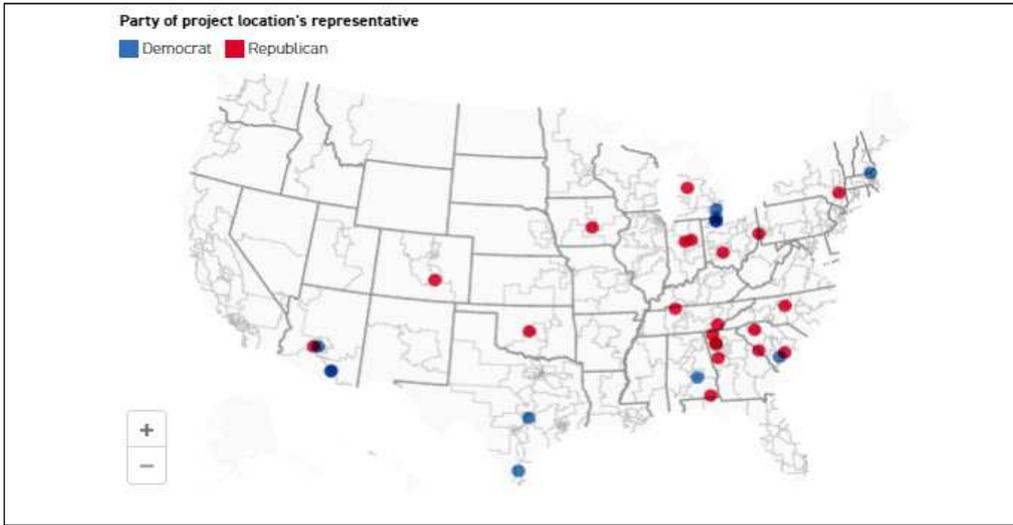
기술	기업	개장일	비고	지역(주)
배터리 저장소 (Battery Storage)	American Battery Factory	미정	리튬 배터리셀 제조시설	AZ
	Form Energy	2025	배터리 개발	미정
	FREYR	미정	청정 배터리 제조	GA
	LG Chem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MI
	Piedmont Lithium	2025	리튬 공정 제조시설	TN
	Zinc8	미정	배터리 제조	NY
태양광 (Solar)	Canadian Solar	미정	제조	미정
	Enel	2024	신규태양광패널 제조	미정
	Enphase Energy	2023	3개 제조시설 예정	미정
	First Solar	2025	신규 제조시설	AL
	Hanwha Q Cells	2024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 허브	GA
	Heliene	2023	기존 대비 2배 규모 증축	MN
	Meyer Burger	미정	기존 제조시설 확장	AX
	Mission Solar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TX
	PV Hardware	2023	태양광 추적기 제조	TX
	Seraphim Energy Group	2023	신규 PV 모듈 제조	TX
	SolarEdge	2023	변환기 등 생산시설	미정
	Toledo Solar	2027	기존 제조시설 확장	OH
풍력 (Wind)	CS Wind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CO
	TPI Composites	2024	기존 폐쇄시설 재개장	IA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 IRA 친환경 투자 수혜, 역설적으로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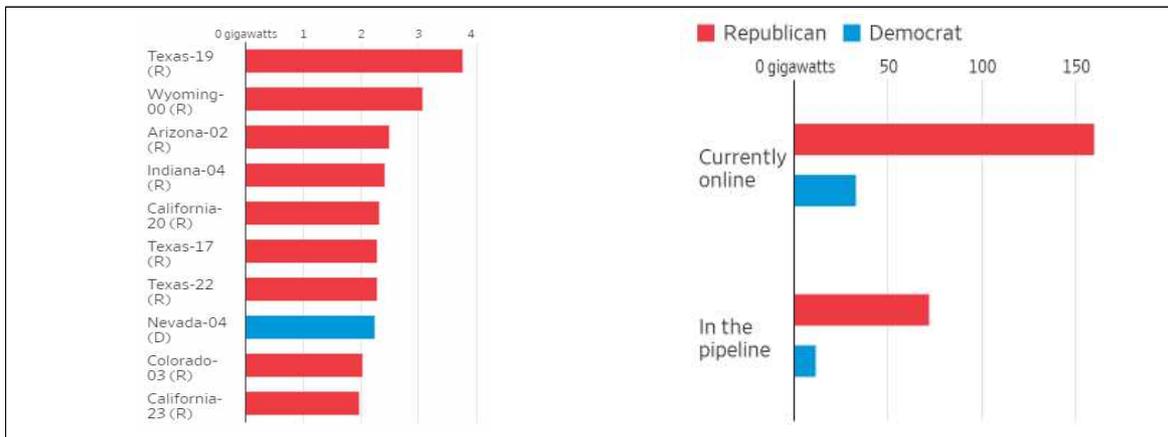
- 현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실제 법안 수혜 효과가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됐다고 보도(1.23)
 - 폴리틱코는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이 좋아하지 않고, 반대했으며,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IRA로 창출된 주요 친환경 프로젝트의 약 3분의 2가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되어 경제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
 - * 프로젝트 단위로는 공화당 지역구에는 21개, 민주당에는 12개가 위치할 것으로 분석
 -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 및 풍력 장비 제조업체가 조지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공화당 선거구에 밀집한 것에 주목
 - 또한 기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일자리나 경제적 혜택 관련 홍보를 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들어 법안에 의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

<미국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신규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Politico 인용

<미국 IRA 이후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WSJ 인용

- 한편, 투자 결정 요건으로 정치 성향보다는 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나 공급망 등 입지적 이점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
 - WSJ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우세 주는 기업 친화적인 조건과 정책으로 기업 유치가 용이했다고 보도하며 인건비, 전력 요금, 세금 등 비용 절감 및 토지 사용 및 허가 등에서 이점이 주효했다고 분석
 - 조지아 주 케네소 주립대학 교수 JC 브래드버리(JC Bradbury)는 공화당 주의 경제개발계획이나 반노조법 등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보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

- 컨설팅 회사인 **Global Location Strategies**는 제조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로 전력비용을 꼽았으며 공화당 주인 테네시 등 남부 및 중부 주의 전력 가격 경쟁력을 중요한 투자 유치 장점으로 지목
- 고용컨설팅 기업인 **LVI Associates**는 인력의 숙련도 대비 급여 수준을 결정요인으로 지목하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남부 지역에 신규 기업 투자 유치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
- * 시간당 공화당 주 평균 35.65 달러 < 민주당 주 평균 43.84 달러(노동통계국, '22년 9월)

□ 현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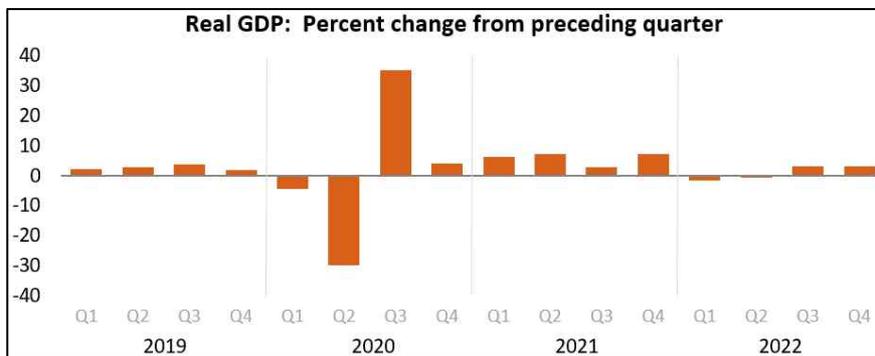
- IRA 입법 효과가 양당 정치역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시사
 - 버지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톰 페리엘로는 이후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의제(IRA)에서 비롯된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공화당원들은 미국이 여전히 기술 구성 요소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안 반대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 견지
 - 전 하원 기후위원회 의장인 캐시 카스토르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가 청정에너지 경제의 일원이 되는 그때가 되면, 공화당의 논점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

* 자료 : 미국청정전력협회, 폴리τικο([1.23](#)), 월스트리트저널([1.23](#)) 등

□ [GDP] 2022년 4분기 GDP 상승추세 발표와 현지 반응

- (개요)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22년 4분기 미국 GDP가 2.9% 상승했다고 발표 (1.26)
 - '22년 미국 GDP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후, 3·4분기에 각각 3.2%, 2.9% 성장하여, 연 2.1% 성장률 기록

<분기별 미국 GDP 기록>



[자료] 상무부 경제분석국

- (상세) 민간·정부의 소비 지출 증가가 4분기 GDP 성장을 견인했으나, 주거 고정 투자 및 수출 감소가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분석
 - 특히 △민간 제조업, 광업과 건설업 재고투자 증가, △소비자 의료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지출 증가, △연방과 주·지방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4분기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
 - 하지만, 4분기 중 △신규 주택 건설량 하락에 따른 중개수수료 감소, △석유를 제외한 비내구재 상품 수출 감소가 마이너스를 작용
- (반응) 일부 언론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기 수축 국면이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며, 올해 1분기 GDP 역성장 예상
 - 27일 발표된 12월 미국 내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모두 전월 대비 0.2% 감소하여 1분기 중 경기 침체 돌입 가능성 제기

* 자료 : 경제분석국 보도자료(1.26), 월스트리트저널(1.26, 1.27)

□ [태양광] 미 하원, 태양광 우회덤핑 관세 유예 취소를 위한 결의안 제출

- (개요) 하원 세입 위원회 소속 의원 주도로 초당적 결의안 제출 (1.26)
 - 공동 발의자 댄 킬디(민주), 빌 포지(공화) 등은 태양광 우회덤핑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상무부 규정(22.11월) 무효화를 주장
 - 동 결의안의 근거가 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정부 규정(regulation)은 의회 표결로 취소 가능
 - (배경) 현재 조사 중인 태양광 우회덤핑 관세를 24개월 동안 유예
 - 상무부, 태양광 셀·모듈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예비 판정 발표(22.12.2)
 - 중국 태양광 제품이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로 우회하여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 * 동 발표는 예비 판정이며, 최종 판정은 5.1 기한 발표 예정
 - 소명된 일부 기업 제외 해당국 쏠 기업에 AD·CVD* 관세 부과 예정
 - * 반덤핑 관세율 18.32%~238.95% / 상계관세율 14.75~15.97%
 - 대통령 포고령(22.6.6)에 따라, 태양광 우회 수출 관세를 한시적 유예
 - 향후 최종 우회 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4개국 소재 기업*에 대한 AD·CVD 관세를 '24.6.6까지 중단하도록 명령
 - * 우회덤핑 조사 대상에 말레이시아 소재 우리 기업(한화큐셀, 삼성SDS) 포함
- (반응) 동 결의안이 상·하원 모두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의회검토법에 따라,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상·하원 각각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60일 이내 하원 통과에 실패하면 자동 파기
 - 미국 태양광협회 등 업계는 동남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극렬 반대 중인 바,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 전개 예상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1.26), 킬디 의원실(1.26), 폴리τικο(1.26)

□ (반도체) 美·日·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합의

- (개요) 일본·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참여에 합의(1.27)
 - (안전)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로 수출통제 범위 확대
 - 현지 언론은 네덜란드 정부가 ASML 침지(immersion)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 Nikon에 대해 유사한 규제를 채택하는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도
 - *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을 '19년 중단했지만, 자동차·PC·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세대 장비인 DUV 노광장비는 수출은 지속
 - 다만, 익명의 관계자는 3국 간 논의 내용 공개 계획은 아직 없으며, 합의 이후에도 실행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
 - (반응)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효과 한층 강화 전망
 - (언론) 대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Tokyo Electron과 ASML을 보유한 양국의 합류로 미국의 '22.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실효성 강화
 - 중국의 (1)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역량 구축 노력과 (2) 첨단 칩을 활용한 군사적 발전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승리로 평가
 - (ASML)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학적 이유로 내린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언급했으나, 반도체 품귀 현상 재발 가능성 경고
 - 한편, 피터 벤닝크(Peter Wennink) ASML CEO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부추긴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은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경고
- * 자료 : 로이터(1.25), 폴리티코(1.25), 블룸버그(1.26, 1.27) 등

□ (WTO) 미 무역대표부, '국가안보는 WTO 판결에 우선'

- (개요) 마리아 파간(Maria Pagan)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 참석해 최근 미국이 패소한 WTO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발표(1.27)
 - WTO 패널 보고서는 '22.12월, 미국의 232조 관세와 홍콩산 제품을 중국산으로 표기토록 조치한 것을 국제 협정 위반으로 판정
- (항소) USTR은 관련 행정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주장
 - 파간 부대표는 “미국이 필수적인 안보에 대한 의사 결정을 WTO 패널에 위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발언
 - 미국이 항소함에 따라, 관련 분쟁은 현재 미국의 위원 임명 거부로 기능이 마비된 상소 기구로 이전되어 판결이 지연될 전망
- (개혁) '24년 이후 분쟁 중재 제도 개혁 완료 및 상소 기구 재개 기대
 - 파간 부대표는 작년 미국 주도의 비공개 협의에서 논의된 12개 주제에 진전이 있으며, '24년 말까지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언급
 - 다만, 일부 언론은 미국이 분쟁 해결 제도 개혁에 국가안보 관련 규정 검토를 강력히 제기할 전망에 따라, 주요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WTO를 통한 원활한 분쟁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

* 자료 : 인사이트트레이드(1.27), 폴리τικο(1.27) 등

□ (리우분쟁)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차원의 美·우크라이나 MOU 체결

- (개요) 전미제조협회(NAM)와 우크라이나기업연맹(ULIE)은 제1차 '美-우크라이나 제조사 회의' 개최, 전후 재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 규탄과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확인하며 민간 기업 차원의 금융·기술 지원 협력에 합의
- (상세) 양국 기업단체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협력 기반 마련
 - 동 회의에서 미국 기업들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금융 및 기술 등 지원 노력을 재평가하고 양국 간 R&D, 대학 교류, 상품 및 인력 소싱 등 추가적인 협력 기회를 공론화
 - 양 기관은 MOU를 통해 (1) 민주적 가치 존중과 자유로운 기회 보장, (2) 비즈니스·무역 관계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창설, (3) 추가 협력 기회 모색을 위해 대표단 파견 등 정보 공유 활동에 합의
- (지원 현황) 2022~2023 회계연도 동안 미국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총 1,134억 달러 규모 예산 승인
 - 이 중 468억 달러(약 41%)가 국무부 등이 주관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단체, 인도적·경제적 지원 활동 등에 배정

* 자료 : 전미제조협회 보도자료([1.25](#), [1.26](#)), 미국 의회조사처([1.4](#))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Consumer Spending Drop Adds to Signs of U.S. Slowdown (소비자 지출의 감소, 미 경기 둔화의 신호인가)
	작년 미 가계는 연말 들어 더 신중히 소비하여 연말 휴일 특수기간에 약 0.2% 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은 '21년 10월 이후 최저수준 기록.
The Washington Post	Musk meets with GOP tech critics and Biden aides during D.C. visit (머스크, 공화당 반테크주의자들과 바이든 보좌진 등 만나)
	머스크는 이번 주 케빈 매카시 등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만나 트위터는 '공정'하다고 밝혀... 백악관 보좌진들과는 전기자동차 관련 이슈 논의
New York Times	Republicans Re-elect a Trump Loyalist as the Head of the R.N.C. (공화당, 트럼프 충성파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출)
	로나 맥다니엘, 실망스러운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에 재선출, 4번째 임기 시작 예정
CNN	Russians react with defiance, anger and worry as a new phase of war looms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전쟁, 러시아인의 반감, 분노, 고뇌)
	러시아의 언론이 서방의 전차 지원 사실에 대해 보도하자 모스크바 주민들은 서방에 대한 분노, 전쟁에 대한 반감, 종전협상 촉구 등 다양한 감정을 토로
USA Today	McDaniel wins race for party chair as GOP weighs how close to stick to Trump (트럼프와의 거리를 고민하는 공화당, 전국위원장 선거를 승리한 맥다니엘)
	2016년 트럼프의 지명에 의해 첫 임기를 시작했던 맥다니엘은 공화당의 최근 실망스러운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승리

* 미국 동부시간 1월 27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45	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	2022.12월
US22-44	제3차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3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2	美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1주년 실적 평가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1	G20 美·中 정상회담 이후 아·태 이슈에 대한 반응 및 전망	2022.12월
US22-40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주요 내용	2022.11월
US22-39	미국 3/4분기 수출입 실적 분석 및 현지 전망	2022.11월
US22-38	산업안보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2.11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7 (2022.12.26.)		
코인시-6 (2022.12.26.)		